

보도일자

2013. 10. 22 (화) 조간

2013년 지배구조 등급 전면 공표

- 한국기업지배구조원(Korea Corporate Governance Service, 이하 CGS)은 국내 기업의 지배구조, 사회적 책임 및 환경보호(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수준을 매년 평가하고 등급을 부여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우수한 ESG 등급을 가진 기업들을 공표하고 포상해 왔음
- ESG 등급은 ESG 평가점수를 바탕으로 아래 표의 7등급체계에 따라 부여됨
 - ESG 등급은 ESG 개별 및 통합 등급으로 나누며, ESG 개별 등급은 ESG 각 부분의 등급을 의미함
- 금년부터는 지배구조 부문에 한하여 유가증권시장의 ESG평가대상기업(693개사) 전체의 평가등급을 공개함
 - ESG 통합 등급과 사회책임경영 및 환경경영의 개별 등급은 예전처럼 B+이상인 기업의 명단을 공개함

<지배구조 등급별 의미>

등급	의미
S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이 제시한 체계를 매우 충실히 갖추고 있으며, 지배구조 리스크로 인한 주주가치 훼손여지가 매우 적음
A+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이 제시한 체계를 충실히 갖추고 있으며, 지배구조 리스크로 인한 주주가치 훼손의 여지가 상당히 적음
A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이 제시한 체계를 적절히 갖추고 있으며, 지배구조 리스크로 인한 주주가치 훼손의 여지가 적음
B+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이 제시한 체계를 갖추기 위한 노력이 다소 필요하며, 지배구조 리스크로 인한 주주가치 훼손의 여지가 다소 있음
B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이 제시한 체계를 갖추기 위한 노력이 많이 필요하며, 지배구조 리스크로 인한 주주가치 훼손의 여지가 있음
C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이 제시한 체계를 갖추기 위한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지배구조 리스크로 인한 주주가치 훼손의 여지가 큼
D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이 제시한 체계를 거의 갖추지 못하여, 지배구조 리스크로 인한 주주가치 훼손의 현실화가 우려됨

I 2013년 지배구조 등급

1. 등급 부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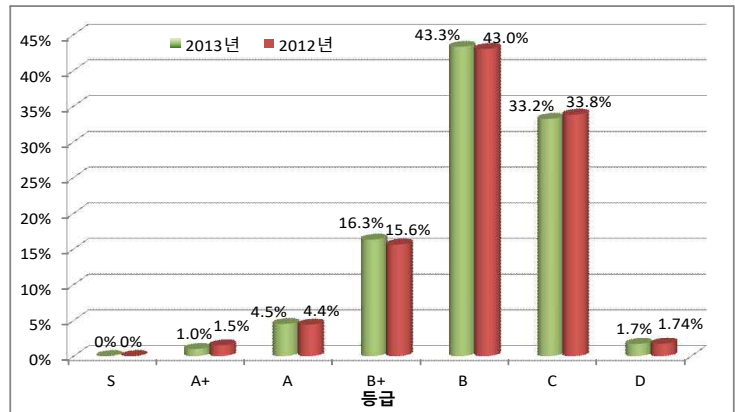
- 금년 평가에서 B+이상의 등급을 부여받은 기업은 151개사(21.8%)로,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함
- B와 C등급의 기업 수 구성비율은 전년 대비 소폭(0.3%p) 감소한 76.5%로, 대부분의 기업들이 법적 요구수준 충족에만 치중함을 알 수 있음
- D등급을 받은 12개사는 92%(11개사)가 공적 제재를 받은 기업으로 지배구조의 즉각적인 개선이 절실함

〈지배구조 등급 부여 현황〉

(단위: 개사)

구분	기업수	구성비율
S	0	0.00% (-)
A+	7	1.00% (△0.5%p)
A	31	4.50% (0.1%p)
B+	113	16.30% (0.7%p)
B	300	43.30% (0.3%p)
C	230	33.20% (△0.6%p)
D	12	1.70% (0.04%p)
총계	693	100%
B+ 이상	151	21.80% (0.3%p)
B+ 미만	542	78.20% (△0.3%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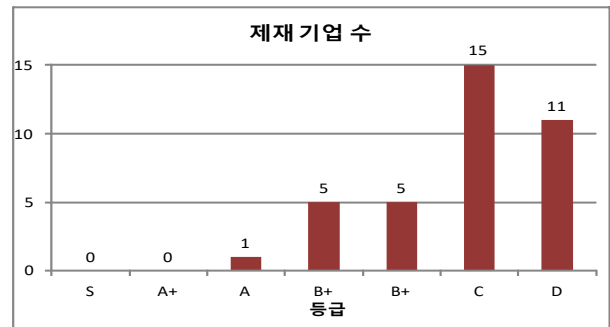
[2013년 지배구조 등급 분포]



* 괄호 안은 전년 대비 비율의 증감을 나타냄

- 2013년 지배구조평가에서 제재받은 기업 수는 37개사임
- 제재의 경중에 따른 감점현황을 보면, 한화는 총수의 배임·횡령,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등으로 가장 큰 감점폭을 보였으며, 태광산업, 보해양조, 마니커 등은 배임·횡령 등에 연루되어 감점폭이 상당함
- A등급에 속한 기업 중 SK네트웍스가 유일하게 감점을 받음 (공정위 과징금)

[등급별 제재기업 현황]



〈주요 이슈 발생 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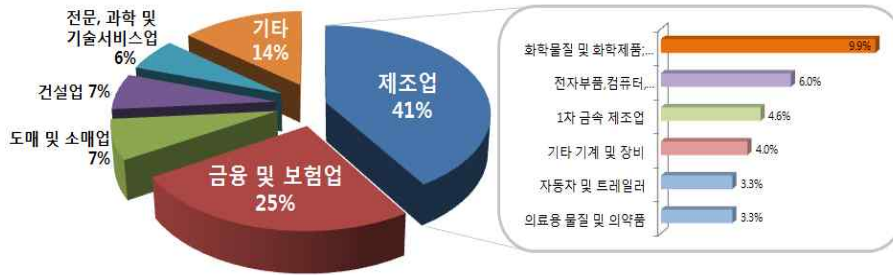
기업명	내용
SK C&C, SK이노베이션, SK, SK하이닉스	최태원 회장의 업무상 횡령혐의 1, 2심 유죄 판결 및 구속
CJ(주) CJ 제일제당	이재현 회장이 해의 비자금 조성 및 탈세 혐의로 구속 (현재 형 집행정지)
만도	한라건설 편법 지원
OCI	그룹 회장부가 버진 아일랜드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여 탈세한 혐의로 검찰 조사
한진해운 한진해운홀딩스	그룹 회장이 버진 아일랜드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여 탈세한 혐의로 검찰 조사
우리금융지주 우리투자증권	감사원 감사결과, 임원진들의 도덕적 해이와 방만한 경영 드러남

-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는 기업지배구조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등급을 조정함
- * 기업지배구조위원회는 외부전문가 14명과 내부 2명으로 구성
- 2013년 지배구조평가에서 등급이 조정된 기업은 12개사임
- SK그룹에 속하는 회사의 경우, 최태원 회장의 구속으로 인하여 최 회장이 등기임원으로 재직 중인 회사의 지배구조 등급이 하향 조정되었음

2. 업종별 등급 현황

- 표준산업분류 대분류 기준, B+이상인 기업 중 제조업이 41%(62개사)로 가장 많으며, '금융 및 보험업' 이 25%(38개사), '도매 및 소매업' 이 7%(11개사) 순으로 나타남
- 제조업 중분류 기준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제외)' 이 10%(15개사),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6%(9개사), '1차 금속 제조업' 5%(7개사) 순으로 B+이상인 기업이 많음

[지배구조등급 B+이상 기업의 업종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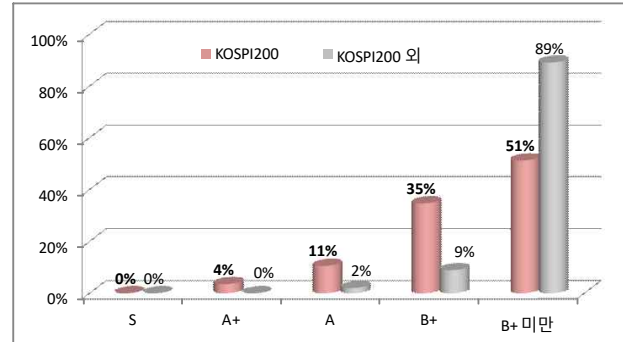
3. KOSPI200 기업과 자산규모별 지배구조 등급 현황

- 지배구조 등급 B+이상을 받은 기업 중 KOSPI200의 비중은 64%(97개사)로 높음
- B+이상인 기업 중 자산 2조원 이상인 기업의 비중은 70%(105개사)로 2조원 미만 기업의 30%(46개사)에 비해 월등히 높음
- D등급에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KOSPI200 기업이 2개사(한화, 태광산업)가 존재하고, 이들 기업은 공적 제재를 받은 기업임 → 즉각적인 지배구조 개선이 절실함

<등급별 KOSPI 200과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의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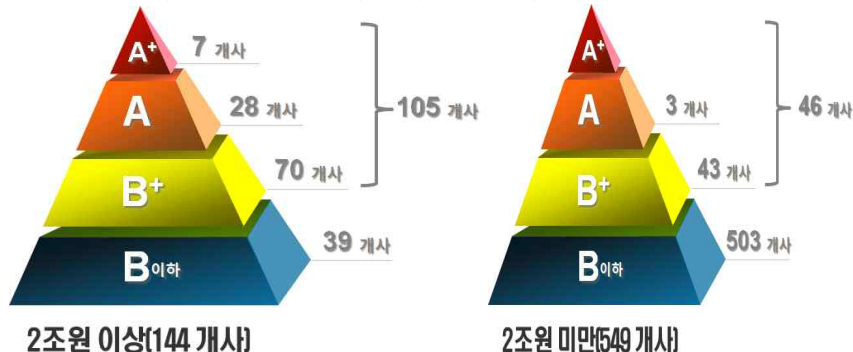
등급	KOSPI200		자산규모 2조원 이상	
	기업 수	구성비율	기업 수	구성비율
S	0	0%	0	0%
A+	7	100%	7	100%
A	21	68%	28	90%
B+	69	61%	70	62%
B	73	24%	32	11%
C	27	12%	5	2%
D	2	17%	2	17%
계	199		144	
B+이상	97	64%	105	70%

[KOSPI200과 그외 기업의 지배구조등급 분포 비교]



※ KOSPI200 기업 중 휴비스는 2012년 2월 신규상장한 기업으로 평가대상에서 제외되었음

[자산규모별 지배구조 등급 분포 비교]



II 2013년도 ESG 등급

- 금년 평가에서 B+이상의 ESG 통합등급을 부여받은 기업은 131개사(18.9%)로, 전년도 대비 소폭 증가함
- 기업들의 ESG 성과에 대한 개선노력으로 인하여 ESG 통합등급 B+미만 기업들의 비중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음

〈ESG 등급 부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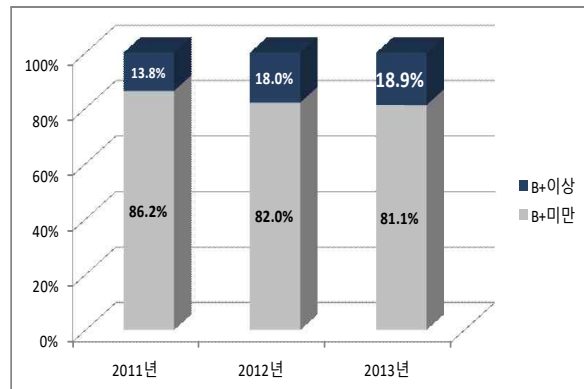
(단위 : 개사)

구분	지배구조		사회책임경영		환경경영		ESG 통합	
	기업수	구성비	기업수	구성비	기업수	구성비	기업수	구성비
S	0	0.00% (-)	0	0.00% (-)	0	0% (-)	0	0% (-)
A+	7	1.00% (△0.5%p)	10	1.40% (△0.8%p)	6	0.90% (△0.6%p)	6	0.90% (△0.1%p)
A	31	4.50% (0.1%p)	46	6.60% (0.1%p)	36	5.20% (0.3%p)	34	4.90% (△0.3%p)
B+	113	16.30% (0.7%p)	90	13.00% (1.7%p)	122	17.60% (△1%p)	91	13.10% (1.3%p)
B	300	43.30% (3.3%p)	249	35.90% (△2.7%p)	299	43.10% (7.6%p)	344	49.60% (2.4%p)
C	230	33.20% (△0.6%p)	298	43.00% (2.2%p)	205	29.60% (△5.5%p)	218	31.50% (△3.1%p)
D	12	1.70% (-)	0	0.00% (△1.7%p)	25	3.60% (△1.6%p)	0	0% (△0.1%p)
총계	693	100%	693	100%	693	100%	693	100%
B+이상	151	21.80% (△0.3%p)	146	21.10% (1.1%p)	164	23.70% (△0.5%p)	131	18.90% (0.9%p)
B+미만	542	78.20% (0.3%p)	547	78.90% (△1.1%p)	529	76.30% (0.5%p)	562	81.10% (△0.9%p)

* 괄호 안은 전년도 대비 비율의 증감을 나타냄

- ESG 개별 및 통합 등급에서 최상위등급인 S등급에는 해당기업이 없음
- 올해 ESG 통합등급 B+이상인 기업의 비중은 18.9%로 전년대비 0.9%p 증가함
 - 2011년(13.8%) 이후 꾸준히 증가함→ 기업들의 ESG 성과에 대한 개선 노력이 증가함

[ESG 통합등급 구성비 (2011-13년)]



“세부 분석 내용은 <붙임 1> 참조”

III 종합 평가 및 시사점

- KOSPI200과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우수
 - 지배구조등급이 B+이상인 기업 중 KOSPI200과 자산총액 2조원이상인 기업들의 비중이 각각 64%, 70%를 차지함
 - 특히 통합등급 A+에 속하는 기업 모두가 KOSPI200이고 자산 2조원 이상인 기업임
- 표준산업분류 대분류기준 업종별 현황에서는 제조업이 지배구조 등급 B+이상인 기업이 가장 많고(62개사, 41%), 다음은 금융 및 보험업(38개사, 25%)임
- 기업집단의 지배구조 등급 산출결과, 두산이 A등급으로 가장 우수하고, LG, 현대중공업, 현대가 B+등급임
 - 나머지 16개 기업집단은 모두 B등급이하로 지배구조 개선의 노력이 필요함
- 기업들의 ESG 성과 개선에 대한 노력으로 인하여 ESG 통합등급 B+미만인 기업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 상장기업 전반의 ESG 성과의 개선을 위해서는 B+미만의 기업에 대한 ESG 성과 개선의 유도가 필요함
 - ESG 평가 기본보고서를 통해 ESG 성과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한 상세 설명 제공
 - 각 평가부문별로 업종별, 규모별 강약점을 분석하여 개별 기업들에게 제공

붙임 1. 2013년 ESG 등급 부여 및 공표

※ 담당부서 및 담당자 : ESG평가부문 오덕교 연구위원 (3775-3701, deokkyo@cgs.or.kr)
ESG평가부문 이다영 연구위원 (3775-3702, dianelee80@cgs.or.kr)

2013년 ESG 등급 부여 및 공표

I ESG 등급 부여 절차



① 평가대상 기업선정

-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주식회사로 상법 542조의 2(적용범위)에서 정하는 ‘상장회사’ 에서 평가대상연도부터 등급 부여일까지 신규상장 또는 상장폐지된 기업, 특수목적법인, 본사를 해외에 둔 기업 등은 평가대상기업에서 제외함

<유가증권시장 평가대상기업의 증감내역>

(단위:개사)

평가년도		증감	증감 내역			
			증가(9개사)		감소(26개사)	
‘12년	‘13년		신규	관리종목해제	관리종목 지정	상장폐지
710	693	-17	7	2	11	15

② 1차 평가

- 평가대상기업의 공개된 정보(홈페이지, 사업보고서, 지속가능성보고서) 등을 참고하여 기업지배구조원 내 평가인력이 직접 평가함

③ 피드백

- 1차평가된 결과를 기업담당자들에게 직접 안내하고 수정·보완할 사항을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반영함

④ ESG 등급 부여 및 우수기업 선정

- ESG 등급 부여 : ESG 등급 부여절차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등급심의소위원회에서 등급부여안에 대하여 심의하고, 지배구조등급위원회에서 등급부여안을 의결함
- ESG 우수기업 선정 : 등급심의소위원회에서 부여된 ESG 등급을 바탕으로 기업지배구조위원회에서 ESG 우수기업을 선정함

⑤ ESG우수기업 시상식

<2013년 ESG 우수기업 시상 현황>

구분	수상기업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ESG 대상	두산중공업	-
ESG 최우수상	S-OIL	다음커뮤니케이션
ESG 우수상	삼성전기	안랩
	신한금융지주회사	
	케이티	

⑥ KRX SRI결과 활용(9월)

II ESG 등급 부여 결과

1. ESG 통합·개별 등급 현황

- 2013년도 ESG 등급부여 결과, 유가증권시장기업 693개사 가운데 B+이상의 ESG 통합등급을 부여받은 기업은 131개사로 지난해 128개사에 비해 3개사가 증가 (2.3%)하였고, 전체 비율 역시 18.0%에서 18.90%로 0.9%p 상승함
- 2012년 등급결과 대비, A등급의 비율은 -0.3%p 감소하였으나 B+등급은 1.3%p 증가함
- B+ 등급의 기업들의 ESG 성과 개선 노력이 두드러짐

〈ESG 통합 등급 분포 현황〉

(단위 : 개사, %)

구분	2012년		2013년		
	기업수	구성비	기업수	구성비	
총계	710	100.0	693	100	
B+ 이상	S	0	0	0	
	A+	7	1.0	6	0.9
	A	37	5.2	34	4.9
	B+	84	11.8	91	13.1
	계	128	18.0	131	18.90
B+ 미만	B	335	47.2	344	49.6
	C	246	34.7	218	31.5
	D	1	0.1	0	0
	계	582	82.0	562	81.1

- 2013년도 ESG 각 부문별 등급부여결과, B+이상 기업비중은 지배구조 21.8% (151개사), 사회책임경영 21.1%(146개사), 환경경영 23.7%(164개사)으로 나타남.
 - 전체 기업 수 대비 B+이상 등급을 부여받은 기업 수의 비율은 지배구조, 사회책임경영, 환경경영별로 전년도 대비 각각 0.3%p, 1.1%p, -0.5%p 변동됨
- 2013년 A+등급에 속하는 기업 수는 ESG 전 부문에 걸쳐 2012년도 대비 모두 감소함
 - 이는 ESG 통합등급 최상위권에 속하는 기업들의 ESG 평가 개선 노력이 미미하고 오히려 후퇴하고 있음을 뜻함
- S등급에 속한 기업은 아직 없어 우리나라 기업의 ESG 등급 수준에는 아직 개선의 여지가 많음을 알 수 있음

〈ESG 부문별 등급 분포 현황〉

(단위 : 개사, %)

구분	2012년						2013년						
	지배구조		사회책임경영		환경경영		지배구조		사회책임경영		환경경영		
	기업수		기업수		기업수		기업수		기업수		기업수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총계	710	100	710	100	710	100	693	100	693	100	693	100	
B+ 이상	S	0	0	0	0	0	0	0	0	0	0	0	
	A+	11	1.5	16	2.3	11	1.5	7	1	10	1.5	6	0.9
	A	31	4.4	46	6.5	29	4.1	31	4.5	46	6.6	36	5.2
	B+	111	15.6	80	11.3	132	18.6	113	16.3	90	13	122	17.6
	계	153	21.5	142	20	172	24.2	151	21.8	146	21.1	164	23.7
B+ 미만	B	305	43	274	38.6	252	35.5	300	43.3	249	35.9	299	43.1
	C	240	33.8	290	40.8	249	35.1	230	33.2	298	43	205	29.6
	D	12	1.7	4	0.6	37	5.2	12	1.7	0	0	25	3.6
	계	557	78.5	568	80	538	75.8	542	78.2	547	78.9	529	76.3

2. 업종별 비교

□ 평가대상기업의 업종별 기업 수를 살펴보면 기업 수가 가장 많은 업종은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의약품제외)’ 이고 ‘도매 및 소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순임

* 제조업은 표준산업분류 중분류 기준, 나머지 업종은 대분류 기준임

□ 통합등급 B+이상 기업의 업종별 비중을 살펴보면, ‘금융 및 보험업’ 이 15%(20개사),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의약품제외)’ 이 11%(15개사),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통신장비’ 가 9%(12개사) 순으로 나타남

○ 환경경영의 평가등급에서 B+이상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업종은 164개사 중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의약품제외)’ 가 17%(28개사), ‘1차 금속 제조업’ 이 10%(16개사),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9%(14개사) 순임

- 환경경영 부문에서 B+이상인 기업 중 제조업의 비중이 높은 것은 유해화학물질 관리규제, 에너지 효율기준 강화,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 등 글로벌 환경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관련업종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친환경 기술 및 제품개발 노력, 환경경영체제를 재정비하려는 업계노력이 반영된 결과라 할 수 있음

□ 사회책임경영 부문에서는 B+이상인 기업 146개사 중 ‘금융 및 보험업’ 이 12%(17개사)로 가장 많고,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의약품제외)’ 와 ‘도매 및 소매업’ 이 각각 10%(15개사), ‘건설업’ 이 8%(12개사) 순으로 나타남

- 지배구조 부문에서는 B+이상인 기업 151개사 중 ‘금융 및 보험업’ 이 25%(38개사)로 가장 많고,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의약품제외)’ 가 10%(15개사), ‘도매 및 소매업’ 이 7%(11개사) 순임
- B+미만의 ESG 통합등급에서의 업종별 분포를 살펴보면,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제외)’,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도매 및 소매업’, 이 가장 많은 기업 수를 갖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화학업은 B+등급이상에서 가장 많은 기업 수를 보인 동시에 B+미만에서도 가장 많은 기업 수를 보여 ESG 성과가 양호한 기업군과 미흡한 기업군으로 확연히 구분됨을 알 수 있음
- 환경경영 부문에서 B+미만 등급의 업종분포를 보면, ‘도매 및 소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순으로 기업 수가 많음
 - 특히 ‘금융 및 보험업’ 에서는 증권업이 가장 취약함

[업종별 B+이상 ESG 등급 부여 기업 현황]

산업분류	전체 기업수		통합등급 기업수		환경 기업수		사회 기업수		지배구조 기업수	
	기업수	구성비	기업수	구성비	기업수	구성비	기업수	구성비	기업수	구성비
A 농업, 임업 및 어업	5	1%	0	0%	0	0%	0	0%	0	0%
B 광업	1	0%	0	0%	0	0%	0	0%	0	0%
C 제조업										
C10 식료품	29	4%	4	3%	10	6%	5	3%	1	1%
C11 음료	5	1%	2	2%	2	1%	2	1%	0	0%
C12 담배	1	0%	1	1%	1	1%	1	1%	1	1%
C13 섬유제품: 의복제외	11	2%	0	0%	0	0%	0	0%	1	1%
C14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15	2%	0	0%	0	0%	0	0%	0	0%
C15 가죽, 가방 및 신발	4	1%	0	0%	0	0%	0	0%	0	0%
C16 목재 및 나무제품, 가구제외	3	0%	0	0%	1	1%	0	0%	0	0%
C17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20	3%	1	1%	8	5%	1	1%	0	0%
C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0	0%	0	0%	0	0%	0	0%	0	0%
C19 코크스, 연탄 및 석유 정제품	4	1%	2	2%	2	1%	2	1%	2	1%
C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의약품제외	64	9%	15	11%	28	17%	15	10%	15	10%
C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37	5%	3	2%	4	2%	2	1%	5	3%
C22 고무 제품 및 플라스틱 제품	19	3%	2	2%	5	3%	2	1%	3	2%
C23 비금속 광물제품	22	3%	2	2%	4	2%	2	1%	1	1%
C24 1차금속 제조업	44	6%	7	5%	16	10%	5	3%	7	5%
C25 금속 가공 제품:기계 및 가구제외	9	1%	0	0%	1	1%	1	1%	0	0%
C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통신장비	44	6%	12	9%	14	9%	11	8%	9	6%
C27 의료,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4	1%	0	0%	0	0%	0	0%	1	1%
C28 전기장비	17	2%	2	2%	4	2%	2	1%	1	1%
C29 기타 기계 및 장비	31	4%	5	4%	6	4%	7	5%	6	4%
C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41	6%	5	4%	8	5%	5	3%	5	3%
C31 기타 운송장비	8	1%	6	5%	5	3%	6	4%	4	3%
C32 가구	6	1%	0	0%	2	1%	0	0%	0	0%
C33 기타 제품	1	0%	0	0%	0	0%	0	0%	0	0%
D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11	2%	4	3%	3	2%	6	4%	5	3%

E 폐기물, 환경복원	0	0%	0	0%	0	0%	0	0%	0	0%
F 건설업	27	4%	8	6%	6	4%	12	8%	10	7%
G 도매 및 소매업	54	8%	11	8%	6	4%	15	10%	11	7%
H 운수업	20	3%	6	5%	7	4%	8	5%	5	3%
I 숙박 및 음식점업	1	0%	0	0%	0	0%	0	0%	0	0%
J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	22	3%	6	5%	4	2%	6	4%	8	5%
K 금융 및 보험업	49	7%	20	15%	9	5%	17	12%	38	25%
L 부동산업 및 임대업	1	0%	0	0%	0	0%	0	0%	0	0%
M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53	8%	6	5%	6	4%	9	6%	9	6%
N 사업시설 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4	1%	0	0%	0	0%	1	1%	0	0%
P 교육 서비스업	2	0%	0	0%	1	1%	1	1%	1	1%
Q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0	0%	0	0%	0	0%	0	0%	0	0%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4	1%	1	1%	1	1%	2	1%	2	1%
계	693	1	131	1	164	1	146	1	151	1

※ 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 21개 중 3개*를 제외한 17개 대분류와 C제조업의 경우 24개 중분류에 대해서 작성함

* 제외업종 : [S.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T.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U.국제 및 외국기관]

3. KOSPI 200 기업의 ESG 등급

□ ESG 통합등급

- B+이상의 등급에서 KOSPI200이 차지하는 비중은 77.1%(101개사)로 아주 높음
- KOSPI200 기업은 A+등급에서는 100%(6개사), A등급에서는 94.1%(34개사 중 32개사), B+등급에서는 69.2%(91개사 중 63개사)를 차지하고 있어 B+이상의 등급에 30개사만 있는 KOSPI200의 기업보다 ESG 성과가 훨씬 우수하다고 볼 수 있음

※ KOSPI200 기업 중 휴비스는 2012년 2월 신규상장한 기업으로 평가대상에서 제외되었음

- KOSPI200 외 기업 중 ESG 통합등급 A+를 받은 기업은 전무하고, A등급을 받은 기업은 2개사에 불과하며, B+등급에는 28개사만 존재함
 - KOSPI200의 기업의 경우, 93.9%가 B 이하의 등급을 받아 ESG 성과 개선에 대한 노력이 아직은 부진한 실정임
- 한편 KOSPI200에 속하는 기업 중 ESG 성과가 양호한 기업은 101개사, 50.8% 수준으로 KOSPI200에 속하는 기업 중 절반 정도는 지배구조, 사회책임경영, 환경경영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ESG 개별 등급

- ESG 개별 등급에서도 A+등급에 속하는 기업은 모두 KOSPI200 기업임
 - 대체로 B+와 B 등급에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음
- 구성비율(등급 내 전체 기업 수 대비 KOSPI200 기업 수)을 보면, 등급이 내려갈수록 구성비율이 하락함
 - 특히 B+이상 등급에서는 64~73%의 구성비율을 보이고 있어 부문별 우수기업의 대부분을 KOSPI200이 차지하고 있음

〈ESG 등급별 KOSPI200 비중〉

등급	지배구조		사회책임경영		환경경영		ESG 통합	
	기업 수	구성비율	기업 수	구성비율	기업 수	구성비율	기업 수	구성비율
S	0	0%	0	0%	0	0%	0	0%
A+	7	100%	10	100%	6	100%	6	100%
A	21	68%	41	89%	35	97%	32	94%
B+	69	61%	53	59%	78	64%	63	69%
B	73	24%	72	29%	51	17%	87	25%
C	27	12%	23	8%	28	14%	11	5%
D	2	17%	0	0%	1	4%	0	0%
계	199		199		199		199	
B+이상	97	64%	104	71%	119	73%	101	77%

4. 자산규모별 ESG 등급

□ ESG 통합등급

- 자산총액 2조원을 기준으로 기업을 나누어 비교한 결과, ESG 통합등급 B+이상을 획득한 기업의 비중이 자산 2조원이상 기업(144개사) 중 69%(100개사)로 2조원미만 기업(549개사)의 5.7%(31개사)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자산규모가 2조원이상인 기업 중 2013년 ESG 통합등급 B+이상을 받은 기업은 100사로, B+이상 등급 기업(131개사)의 약 76%를 차지함 (2조원미만 기업은 31개사)
 - A+를 받은 모든 기업이 자산총액 2조원 이상 기업임 (2조원미만 기업은 전무)
 - A를 받은 기업 34개사 중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은 29개사로 85.3%의 비중을 보임
 - B+등급에서는 91개사 중 65개사가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으로 71.4%를 차지함
 - 자산규모가 큰 기업들의 ESG 성과가 대체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남
- 자산 2조원 미만 기업의 94%는 B등급 이하의 ESG 통합등급을 부여받아 ESG 성과 개선의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 ESG 개별 등급

- 전 부문에서 자산 2조원 이상인 기업은 B+등급을 가장 많이 부여받음
- 자산 2조원이상인 기업의 등급 내 비율을 살펴보면, ESG 통합등급과 함께 사회책임경영 부문에서는 등급이 올라갈수록 등급 내 구성비율이 증가함
 - 이는 자산규모가 큰 기업들이 사회책임경영과 ESG 성과가 우수하다는 것을 의미함

- 지배구조 부문에서 D등급에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기업이 2개사 존재하고, 이들 기업은 공적 제재를 받은 기업임
- 환경경영 부문에서는 D등급에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기업이 5개사 존재하고, 이들 기업은 금융업에 속하는 기업으로서 관련 환경규제가 거의 없어 환경경영에 관심이 없는 기업들임

<ESG 등급별 자산규모 2조원 이상 기업의 비중>

등급	지배구조		사회책임경영		환경경영		ESG 통합	
	기업 수	구성비율	기업 수	구성비율	기업 수	구성비율	기업 수	구성비율
S	0	0%	0	0%	0	0%	0	0%
A+	7	100%	9	100%	6	100%	6	100%
A	28	90%	40	87%	32	89%	29	85%
B+	70	62%	47	52%	50	41%	65	71%
B	32	11%	34	14%	25	8%	39	12%
C	5	2%	14	5%	26	13%	5	2%
D	2	17%	0	0%	5	20%	0	0%
계	144		144		144		144	
B+이상	105	70%	96	66%	88	54%	100	76%